

# 칼럼들과 파이널 보조 자료

GIST해리케인, 김민석



[칼럼01]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칼럼04] 주간계획표

[TIP!]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네

---

시험 전략에 대하여

지문 위 표시법

실모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 [칼럼01]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참 못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 친구들보다 진도를 빨리 빼는 편이었지만,

국어는 영... 잘 감이 안 왔습니다.

### 1. 고3 : 18수능

중학생 초등학생 때는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그냥 잘 넘어간 편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어를 못 할뿐더러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으니 성적이 잘 안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국어 내신은 항상 4~5등급이었고 모의고사는 어쩌다가 3등급, 대개 4~5등급이었죠. 김동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기삼이"(기껏 해야 삼등급) 가 바로 저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중간고사 때 19점을 맞아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던 같은 반 친구보다 못 봤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시험이었는데도 말이죠.

과학 특기로(물리) 어떻게 비벼보아야지 했지만

저의 재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고삼 때는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하기에 그때 처음으로 국어 공부라는 것을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의 90% 가까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고, 농어촌 학교였기에 선생님께 국어 공부법을 여쭙 봐도 도움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냥 예쁜 문제지 사라더군요. 그게 제일 유명할테니까. 저는 기출의 중요성을 하나도 몰랐고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글을 이해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비같은 수험생 커뮤니티를 하면 됐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입시 정보가 너무도 부족하여 이런 사이트의 존재도 잘 몰랐고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오르비 수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감이 뭔지도 재수 때 알았습니다. (봉소'가 실제 이름이란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제 친구가 발체독을 해보라길래 발체독을 해봤고, 매삼비 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했지만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없을 뿐더러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발체독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면 발체독을 할 수 있는 지문이 눈에 띄지만, 그 경지까지 오르기 전에 이미 1등급 컷의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 이번 수능에 발체독을 일부 이용했습니다. 30분이 안 걸리고 독서는 하나 틀렸네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칼럼으로 만나요!)

### "6월 국어 5등급"

해도 안 오르고, 해도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7월쯤에는 거의 포기를 하였고 이후 수능 때까지 국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9월 국어 5등급"

그러다 수능 전 날(18학년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태 풀었던 독서 지문들 중에서 지문에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어 지문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어차피

않을 것 없으니, 수능 날 처음으로 시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처음부터 차분히 모든 글을 이해하며 읽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엔 기적적으로 높은 3이 떴습니다.

그 때 제가 문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 문법을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전 5에서 2가 되는 기적을 보이는 거였겠죠. 8~11월간 거의 공부를 안 한 채로. 그렇지만 수학 5등급이라는 놀라운 점수에 저는 재수 확정이었습니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전 수능 공부를 고3 때 제대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틀린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주위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 2. 재수 : 19수능

재중에서 재수를 하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5에서 3은 쉬운데 그 이후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확실히 저희 학교 선생님들보다 압도적으로 '수능'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중 국어 선생님들도 그냥 지문을 설명해 주실 뿐이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고 왜 여기에 근거가 있는지 말해주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가야지...' 라는 생각에 고민하던 와중, 4월에 메가패스를 구입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클래스부터요. 그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첫 강의에선 깨달음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국어 지문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가 맞는 태도라는 것에 확인을 받으며, "호기심"은 이를 수월하게 해준다는 팁을 얻었죠. 선생님의 말씀대로 매일 아침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국어가 제일 부족했기에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은 국어에 쏟았고 매일 호기심을 가지며 반응하는 국어를 반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130페이지 내외의 숙제장인 연필통을 일주일에 많으면 두 개씩 해치웠습니다. 재중 선생님의 수업 시간엔 김동욱 선생님께 배운 태도들을 적용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정말 몰아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호기심이 정말 생겼으며, 그냥 국어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럴 수가, 국어 공부 안하고 물리만 공부하기로 소문났던 내가 국어를 제일 재밌어 한다니.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6월 모의고사 직전 즈음 바탕 모의고사 1회차를 보았습니다. 시간 재고 OMR카드에 마킹하며, 일부러 패널티를 주기 위해 공부에 지쳐 피곤에 절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채점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94점이라니. 더 놀란 건 해설 강의에서 1컷이 80 초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만일 이게 수능이라면 적어도 백분위 99였겠죠. (복기해보니 찍은 거 없이 전부 잘 풀었습니다.) 그웁그폴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9수능 때도 1등급을 맞았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이후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진 못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다만, 전과목적으로 진동하는 제 점수를 안정시킬 방법을 몰랐습니다. 19수능 국어는 4등급이 나왔네요. 많은 과정이 있긴 했지만, 뻥하죠. 결국 쌤 삼수를 하게 됩니다.

### 3. 삼수 : 20수능

#### 가) 2월 중순 ~ 6월 : 기본 공부

확실히 김동욱 선생님을 통해 큰 성적 향상이 있긴 했으니 삼수 때도 김동욱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연필통 매일 열심히 풀면서요. 작년에는 그냥 내키는 대로 풀었다면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과목적으로 학습효과를 고려한 빈틈없는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였고 이걸 매주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2등급은 고정으로 나오고 1등급도 6할의 확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더 효율적일지.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효율성을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메타인지는 조금씩 성장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어에서 뭔가 방법론적으로 더 나아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 책 구성이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아 했던 거를 반복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엔 완강을 목표로 했기에 5월까지 일 클래스 취 클래스 열심히 들으며 공부했지만, 국어 공부에 변화를 주기로 해봤습니다. 이때 전 이원준 선생님의 브레인 크래커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 나) 7 ~ 9월 : 상한선 올리기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 독해 방식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읽그풀로만 읽어왔던 제가 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구조 독해를 접하게 되었으니깐요. 6월 모의고사 때 그 타격이 있었고 이후의 공부엔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7월까지 독서 브레인크래커 두 권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구조도를 체화시키고자 매일 거르지 않고 스키마를 세 개씩 꼼꼼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도를 도대체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을지는 감이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계속 2~3 등급이 나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다가오고 계속 브레인 크래커만 붙잡고 있을 순 없기에 구조도 그리는 게 좀 적응이 된 시점에선 비기출인 **그릿**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수를 시작하면서 6모 전엔 공부 실력을, 6모 이후 9모 이전엔 실력을, 9모 이후엔 실전력을 기르자는 계획이 있었기에 고난도 N제로 일단은 넘어간 것입니다. 한 달 정도는 **그릿**을 꾸준히 푸는 데에 시간을 쏟았고 조금 이따 얘기할 EBS 공부로 인해 독서를 조금 소홀히하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독서 공부에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종 선생님의 독서 진또배기 강좌가 대박을 터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제 원리를 생각하고 글의 구조와 전개 의도를 파악해보란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이지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많은 강사들도 하지만 직접 글에서 찾아보며 보여주는 강의는 제 기억에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재종 강사님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강의였죠. 이때부터 조금씩 기출 분석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종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본 결과 성적이 떨어진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독해의 가장 기본은 이해이고 그냥 읽는 것입니다. 구조독이니 발췌독이니 해도 가장 기본은 그저 읽고 이해하는 것. 구조에 신경 쓰고 잡다한 스킬을 쓰는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릿**을 시작한 이후에도 스키마는 하루에 하나정도씩 꾸준히 그렸지만, 이 시기에 저의 독해 방식은 그읽그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간의 독해 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매번 독서 지문 위에 독해 중 의식해야 할 태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 세 줄입니다.

**호기심** : 미시적으로 이해, 거시적으로 스키마  
**이항대립** :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대비되는가?  
**문제의식** :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세 줄은 김동욱t 유대중t 이원준t를 들으며 배운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램t 수업을 파이널 때 들으며 태도가 하나 더 추가되긴 합니다.)<sup>1)</sup> 물론 처음엔 이렇게 써 놓고 위의 태도를 써야하는 걸 까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니, 태도는 자연스럽게 뇌에 안착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대부분의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독서를 위주로 설명해 왔는데, 사실 6월 전까지는 이렇다 할 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을 살리기 위한 문학 공부를 하였죠. 6월 모의고사까지도 전 문학에서 35분을 썼고 25분 동안 독서 두 지문 반을 풀어왔습니다. EBS 정리도 안했고 기출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저는 주로 독서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었습니다.<sup>2)</sup>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은 후 국어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35분동안 문학을 푸는 게 그렇게 많이 잘못되진 않다고 생각하였고 EBS도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때 까진 탐구와 수학만 EBS를 조금 건드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현실적으로 시간 단축을 위해선 "EBS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7~9월은 EBS를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문제도 풀면서요.<sup>3)</sup>

유대중 선생님의 OVS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처음엔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감이 도저히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써야 집중이 되는 타입이라 문학을 풀 때도, 독서를 풀 때도 지문에 엄청 표시를 하며 읽곤 합니다. 그렇지만 OVS엔 이미 뭘 추가할 것이 없이 좋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의 고민이기도 했을 겁니다.

전 힘들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전문을 타이핑하였고, 해석 및 분석도 본문 밑에 타이핑하였으며, 책에 정리된 내용도 제가 다시 재구성하여 타이핑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석 및 분석은 1차로 혼자서 최대한 해보았고 2차로 교재의 설명과 비교해가며 수정하였습니다. 강의는 식사시간에 보면서 복습용으로 들었고요.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수십 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백배 낫다는 것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저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꾸준히 했습니다.

한창 EBS 문학 작품들을 정리하며 공부를 하던 중,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인 6월 모의고사를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해설강의를 듣고 오르비에 올라온 해설지를 보며 무엇이 문제였나 짚어 보았습니다. 이때 **피램의 6평 해설지**를 만나게 된 건 제 세 번째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

<sup>1</sup> **정보의 역할** : 교재도 쓰고 수업도 여러번 하면서 지금은 이 태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을 고려하면 3등급까지는 저 세 개의 태도를 머리에 박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등급대에선 독서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지문을 뚫는 7가지 법칙인 Kane's Insight 과 함께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쪽으로 수업합니다.

<sup>2</sup>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푸는 데도 삼수 초기에 계속 1등급이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풀지 않길 바랍니다.

<sup>3</sup> 문학만 OVS로 정리했으며 독서와 화작문은 EBS교재 문제를 풀지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연계율은 실모 풀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구어체로 서술한 그 형식에서 1차 충격을 느꼈고, 철저히 실전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해설을 전개하는 내용에 2차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 해설지는 이래야지**” 제가 보았던 거의 모든 해설지는 그저 답이 왜 답인지를 서술할 뿐 ‘어떻게’를 설명해준 적은 없습니다. 인강은 이를 종종 충족시켜 주었지만 해설지는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도 그럴만 한 게 그들이 쓰는 해설지는 보통 강사 본인이 아닌 연구조교들이 쓸 테니까요.

하지만 **피렘**의 6월 모의고사 해설지는 저자가 직접 쓰는 해설지였기에 저의 니즈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팩트만 짚어라. <보기>를 기준으로 독해해라.** 사실 모두 들어본 말이지만 해설지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적용하였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와 닿았고 이때 저의 문학 작품 해석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공부하고 한 달 좀 넘게 지나 실모를 푸니, **문학을 8분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을 알고 들어가기에 시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라, 해석력 또한 올라갔기에 정확도와 속도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해석력 즉 분석력이 올라가니 문제를 보는 시선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문학 풀이 시간이 줄은 걸 확인한 모의고사를 피드백하며, 문학은 <보기>와 선지만으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전에 들었던 최인호 선생님의 문학 풀이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최인호 선생님의 문학 풀이법을 접했을 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이라 생각되어 무시하였지만, 스스로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엔 매우 통찰력 있고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국어 공부는 두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적과 별개로 저의 공부는 정말 ‘공부’였습니다. 기출에 대한 안목이 급상승하여 선지 구성 방식이 보이고 지문에 쳐진 밑줄(㉠\_ ㉡\_ 등의 밑줄)이 왜 그 부분에 쳐져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등 기출에 대한 공부 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모든 공부거리가 저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능 공부가 아니라 기출을 하나의 연구 거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억지로 공부하려 버텼던 세 시간**, 이젠 **어느새 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서, 문법, 화작, 과탐, 수학 평가원 기출에도 적용되었고 정말 한동안은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게 비통할 정도로요.**

9월 모의고사는 2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문학은 26분이 걸려 다 맞았고 아마 화작문 실수가 아니었으면 1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전 적어도 1등급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상하죠? 하지만 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의 큰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 실전 연습을 안했습니다. 화작문을 몰라서 틀릴 리가 없죠.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기에, 우린 화작문에서 틀린 두 문제와 독서에서 틀린 두 문제를 다르게 대하죠. 아직 실전 연습을 안 했기에 슬퍼할 필요도,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다) 10 ~ 11월 : 하한선 올리기

제 재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건 바로 철저한 실전 연습의 부재입니다. 수능 당일엔 아무리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대개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며, 낯선 의자 낯선 책상 낯선 공기는 본인이 느끼는 긴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또한 18수능과 19수능, 그리고 격변의 20학년도 모평들(적어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을 모두 겪어본 저로서는 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함부로 예측하여 대비하는 상황의 스펙트럼을 좁게 하는 건 자살행위와 다를없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해왔던 N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시험 날의 그 느낌, 채점할 때의 불쾌한 감정과 공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철저한 실전 연습을 통해서요.**

집에서 학원에서 혼자 보는 모의고사는 수능날 우리가 받는 패널티를 눈꼽만큼도 재현해 줄 수 없습니다. OMR 카드도, 가채점표도 안 쓰고, 중간에 화장실 가며, 눈치 안 보고 다리 떨며 보는 모의고사는 안 보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피랩** 선생님의 한수 파이널 무료 특강을 들었습니다. 수업 한 번 만에, 대치 오르비의 시험실(교실) 환경(책상이 좁고 불편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콘텐츠, 선생님의 강의력에 확신을 얻었고 수업 후 바로 부모님께 말씀 드려 파이널 정규반을 수능날까지 다니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삼수는 스스로 벌여 해결했습니다. 재수 후 겨울에 돈을 모았고 2월부터 7월까지 매주 8시간이상 알바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현강을 등록하는 건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어서 저에게 큰 결심이었습니.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한수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을 때 저는 재수 때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6월 때의 저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7~9월 사이의 기출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들과 분석력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전연습은 실모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재수 때의 저와 삼수 때의 저는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 베이스가 탄탄하게 있다는 가정 하에, 화작문은 실전연습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 **피랩t**의 수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화작문을 틀리는 이유는 대개 실전 상황에서의 실수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엔, **피랩t**와 같이 풀었던 한수 모의고사와 파이널 기간 혼자 풀었던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틀린 화작문은 거의 모두 이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총 10번의 실모를 풀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에 현강이 있었고, 그날을 수능날이라 생각하며 매주 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엔 어떤 유형을 틀렸고 이걸 저저번 주에도 틀렸구나."

"이걸 틀린 이유는 끝까지 읽지 않아서이고 이와 같은 원인으로 틀린 다른 문제를 보니 난 이런 유형에선 끝까지 읽지 않는 경향이 있구나."

"이건 이렇게 풀면 편한 문제인데, 이런 식의 선지 구성이 기출에도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OMR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이때는 OMR을 쓰면 refresh되어 오히려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겠구나."

"가채점표는 이렇게 쓰면 나한테 유리하겠지?"

정말 매주 실모를 풀면서 모든 변수를 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시험은 모든 과목이 비슷한 형식으로 보기에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6월에 메타인지를 높였고 7~9월에 실력을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아진 실력으로

본 시험에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본 시험보다 실수나 오답의 유형이 훨씬 적어, 실전력이 상승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앞서 실모를 10개 풀었다고 했지만, 사실 10개가 아닙니다.

일요일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출을 선별하여 다시 풀어보았고 여기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 실모에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날 실모 현강에서 써도 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모를 위한 실모를 푼 것입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후에 칼럼으로 상세히 서술할 "지문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sup>4</sup>

4~5주차쯤 지났을 땐 정말 필요한 태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험장에 가져갈 태도 정리본을 갈래 별로 나누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워드로 정리하고 이를 인쇄한 뒤, 실모와 기출을 통해 검증할 때마다 뺄 태도들은 빼고, 더할 태도들은 더하였습니다.

올린 파일은 수능날 가져갔던 태도 정리본의 완성형입니다.

사실 10회분의 실모를 풀면서 1등급도 많이 나왔지만, 4등급까지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한 번은 2주연속 4등급대의 점수가 나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실모 점수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4등급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죠. 시작을 할 땐 1등급이었고 중간에 진동하는 퍼포먼스를 극복하여, 마지막 10회 때는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모를 위한 실모를 풀 때도 마지막 즈음엔 이감이 90점을 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수능 전날엔 여태 풀었던 실모들을 쭉 훑어보며 오답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출문제지를 훑으며 평가원에 대한 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지 두 권을 보았는데 채 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 년 중 가장 평가원에 대한 감이 돌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sup>4</sup> 지금은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태도들이 엮여서 나오는 결과이거든요. 이를 일반화하려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문 필터링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지문의 모든 문장을 똑같은 힘을 주어서 읽으시면 안됩니다.*

라) 2019년 11월 14일

수능 날,

참 신기하게도,

3번째 수능이지만 떨림은 배가 되었습니다.

수능 전 2주 동안엔 처음으로 긴장해서 밤을 새웠고 배도 아프고....

원래 저는 항상 국어 시험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데, 수능날엔 너무 긴장하여 시험 시작도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때문에 예열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8시 40분 국어 시험 시작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6월 9월과 크게 다른 신유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한 나머지 처음 5분간은 지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문학 화작문 독서 순으로 풀니다.

항상 문학을 길어야 25분 내에 끝내는데, 수능에선 처음 5분간 헤매어서 9시 5분에 일단 문학 1회독을 마치고 9시 25분에 다시 문학을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헛갈리는 게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독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제가 개발한 지문 필터링 기술이 먹히는 지문이었습니다.

독서를 30분이 채 안걸리게 해결하였고 마지막 3분간 문학을 고쳤습니다.

풀고나서의 느낌은 정말 그 어떤 실모를 풀때와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통 망했다 잘봤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망한 건가...?"

좌절을 막 시작하려던 이때,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실사 망했더라도 전혀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독서 하나, 문학 하나로 94점을 맞게 됩니다.

제가 수능 때 결국 94점을 맞게 된 것은 철저한 실전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 재수 때와 똑같이,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수험생이 되어있었을 겁니다.

이런 실전 연습이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비의 대부분의 N수생이 그렇듯이, 수능 때 미끄러져 수능을 다시 보게 되는 거라면 철저한 실전 연습은 필요조건입니다.

---

지금까지 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logue에 썼다시피, 이 글은 수능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의 글이라기보다, 올해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보낸 사람의 글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 [칼럼04] 주간계획표

-일러두기-

본 칼럼에서 여러 인강 선생님을 비교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천하는데, 절대 누가 낫다 못났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인강선생님들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점은 모두 결국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조금 직설적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 [칼럼04] 주간계획표 - 1부

앞서 [칼럼02]에서 말했듯이 제가 올 한해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주간계획표의 작성과 철저한 이행입니다. 이는 여러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다른 칼럼 안 보고 안 지켜도 되니까 이것만은 꼭 따라 주셨으면 좋겠네요.

[칼럼02]에서 언급한 4가지 규칙을 다시 짚어봅시다.

1. 고정된 스케줄을 기준으로 - 식사 시간, 현강/과외 시간 등
  2. 선택과 집중 - 불확실한 것에 기대하지 말 것
  3. 안정된 공부 콘텐츠 - 주어진 콘텐츠, 계획된 콘텐츠에 집중하기
  4. 매주 반복 가능한 계획표 - 계획표가 안정된 뒤엔 매주 수정이 없게
- + 독해지려 애쓰지 말 것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이들을 적용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긴 할 겁니다.

'+ 독해지려 애쓰지 말 것'은 [칼럼02]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계획을 설정해야 할지 많이 막막할 겁니다.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설정하세요. 그 후 이를 어떤 콘텐츠로 충족시킬 건지 정해둡시다. 본 칼럼에선 수험생이 아래와 같은 콘텐츠로 2~6월 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과 물1지1 선택자는 해당 기간에 아래의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 (김동욱T) 일 클래스, (유대중T) 문법 총론, 피램 독서 개념서, 피램 문학 개념서

**수학(가)** : (현우진T) 뉴런, 시냅스, 수분감

**영어** : 솔직히 작년에 영어 공부 하나도 안해서 조언을 못드리겠어요...ㅠ

**물리1** : (배기범T) 필수본, 기출문제지

**지구1** : (오지훈T) OZ 개념, 기출문제지

문과든 이과든 가장 중요한 건 국어, 수학과 이 중 가장 분량이 많은 건 수학입니다. 따라서 수학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둘 것을 권하며, 계획을 세울 때도 수학 공부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1년, 일주일, 하루를 모두 큰 틀로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1년은 [2~6월] [7~9월] [10~11월]

일요일은 [월화수] [목금토] ; 일요일은 보충, 복습, 휴식의 시간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하루는 [오전] [오후] [저녁]

**1년은 이전 칼럼들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을 위와 같이 나눈 기준이 바로 수학 공부입니다.**

문이과 모두 수학은 세 과목을 배웁니다. 일단 이과는 수학1, 미적분, 확통을 배우죠. 일주일 간 전과목적으로 균형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만, 모든 과목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하루에 모두 공부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뉴런을 수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확통을 제일 싫어하고 못한다면 월요일부터 확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수학1. 이렇게 [월화수]를 구성하고 [목금토]엔 이를 반복합니다. 하루에 한 뼛씩.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세 과목 모두 두 뼛씩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셋 다 비슷한 기간 내에 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수능날 시험 순서를 고려하여 나누었습니다.**

국어는 오전에 보고 국어의 집중력이 수학에서 발휘되는 것은 이득이므로, 오전 시간 거의 전부 국어를 하였습니다. 점심 먹고 난 뒤 오후 시간엔 수학을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엔 탐구를 하였고요. 전 이번에 물투를 했어서 지1을 시험 직전에만 하고 대부분의 탐구 시간에 물투를 공부했지만, 1+1 하시는 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수학 공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뉴런입니다. 하지만 뉴런만으로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죠. 기출문제(수분감)도 따로 풀어야 하고 N제도 풀어야 경험치가 올라가죠. 또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한다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 공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간계획표일람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수학	수분감 미적분	수분감 수1	수분감 확통	수분감 미적분	수분감 수1	수분감 확통	이유
	뉴런 확통	뉴런 미적분	뉴런 수1	뉴런 확통	뉴런 미적분	뉴런 수1	
	SYNAPSE 수1	SYNAPSE 확통	SYNAPSE 미적분	SYNAPSE 수1	SYNAPSE 확통	SYNAPSE 미적분	

한 칸은 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3등급 대 실력에 한해서 확통은 통계와 비통계로 나누어서 따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통 공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통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이 거의 끝나갈 때 쯤이면 어느 정도 책 두께를 보며 성취감이 들고 긴장도 풀려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통계를 추석에



마스터 하자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비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한 3등급 대의 학생에 한해선 통계와 비통계를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통계의 기본이 되어있어야 통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만, 결이 조금 달라 따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 자체에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완성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월요일은 비통계 목요일은 통계

주간계획표작성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수학	수문장 미적분	수문장 수리	수문장 확률	수문장 미적분	수문장 수리	수문장 확률	이
	뉴턴 확률 (비통계)	뉴턴 미적분	뉴턴 수리	뉴턴 확률 (통계)	뉴턴 미적분	뉴턴 수리	
	SYMPAGE 수리	SYMPAGE 확률	SYMPAGE 미적분	SYMPAGE 수리	SYMPAGE 확률	SYMPAGE 미적분	

탐구는 간단합니다. 그날 개념 강의 두 개씩 나가고 기출문제 15문제 정도 풀고. 이를 두 과목 번갈아가면서 매일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쓴 거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경우는 좀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워낙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많이 와서요. 3~5등급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김동욱T+피랩개념서**를 추천합니다. 국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유대종T+피랩개념서**도 좋습니다. 김동욱 선생님의 경우 국어의 가장 기본을 알려주십니다. 분야 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정말 기본을 알려주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단순합니다. 독서의 경우 딱 하나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호기심을 가져라' 이 외에 몇가지 더 알려주시긴 하지만, 얼마 되진 않습니다. 백지 같은 수업이어서 김동욱 선생님'만' 들으신다면 사람에 따라 고정 1등급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교재와의 시너지를 내기 좋습니다.

고정 2 이상이신 분한테는 **이원준T+김동욱T, 이원준T+피랩개념서**를 추천합니다. 아예 다른 스타일로 보이는 선생님을 병행하면(사실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건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자신만의 독해 방식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등급 학생들은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국어의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김동욱T+피랩개념서**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3등급 대의 실력이라면 **유대종T+피랩개념서**도 괜찮고 2등급 이상의 실력이라면 **이원준T+김동욱T, 이원준T+피랩개념서**를 추천합니다.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추천 리스트에 피랩개념서를 넣는 이유는 정말 이 책은 어느 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퀄이 좋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시장에서 단순히 퀄만 좋아선 안됩니다. 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색깔도 명확해야죠. **피랩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피랩 검토를 하긴 했지만, 이거 홍보한다고 검토비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순수한 의도로 믿으셔도 됩니다.

화작은 지금 기출 문제지 간단하게 한 권 풀면서 '무슨 느낌이구나'하는 인상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유대중 쌤 개념 수업이 좋긴 합니다. 유대중 쌤 패스 있으시면 들으시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문법 유배가 된 데에는 강의보단 독학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학은 떠먹는 국어 문법에 기출 문제지를 같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선 **김동욱T+피램개념서**를 한다고 하고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김동욱 선생님의 수업은 연습이 핵심입니다. 적어도 두 번 연습하고 강의를 듣는 게 효율이 좋을 겁니다. 연습을 할 땐 피램 교재에서 배운 태도들을 스스로 적용하고 지문에서 드는 의문들을 적고, 해결하고, 왜 글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는지 지문을 씹어먹을 정도로 하세요. 김동욱 선생님 수업은 연습을 열심히 할수록 재밌어집니다.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주간계획표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간계획표 알형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국어	필수재미학습-① PIRAM픽터	필수재미학습-① 필수재미수강	PIRAM문화 문법송문	PIRAM픽터 PIRAM문화	PIRAM픽터 PIRAM문화	PIRAM픽터 문법송문	
	수용감 미적분 뉴진 확률 (비공제)	수용감 수리 뉴진 미적분	수용감 확률 뉴진 수리	수용감 미적분 뉴진 확률 (공제)	수용감 수리 뉴진 미적분	수용감 확률 뉴진 수리	이유
SYMPSE수리	SYMPSE확률	SYMPSE미적분	SYMPSE수리	SYMPSE확률	SYMPSE미적분		
탐구 및 영어	필수본 수강 기출 10문제	02개념수강 기출 10문제	필수본 수강 기출 10문제	02개념수강 기출 10문제	필수본 수강 기출 10문제	02개념수강 기출 10문제	

영어가 때려 죽여도 무조건 2등급이 나오시는 분은 탐구 시간을 조정하여 영어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간계획표 알형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국어	필수재미학습-① PIRAM픽터	필수재미학습-① 필수재미수강	PIRAM문화 문법송문	PIRAM픽터 PIRAM문화	PIRAM픽터 PIRAM문화	PIRAM픽터 문법송문	
	수용감 미적분 뉴진 확률 (비공제)	수용감 수리 뉴진 미적분	수용감 확률 뉴진 수리	수용감 미적분 뉴진 확률 (공제)	수용감 수리 뉴진 미적분	수용감 확률 뉴진 수리	이유
SYMPSE수리	SYMPSE확률	SYMPSE미적분	SYMPSE수리	SYMPSE확률	SYMPSE미적분		
탐구 및 영어	필수본 수강 기출 10문제	02개념수강 기출 10문제	영어 유리권 기출 10문제 지키기 기출 10문제	02개념수강 기출 10문제	필수본 수강 기출 10문제	영어 유리권 기출 10문제 지키기 기출 10문제	

연계 효과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과학탐구 공부를 할 땐 수능 특강이 매우 도움됐습니다. 저는 연계교재를 영어와 문학 빼고 굳이 하라고 하는 편은 아니지만, 탐구 수특은 학습용으로 매우 좋기에 아래와 같이 주간계획표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 주간계획표 작성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국어	최신 과시 테샨-① PIRAM 테샨	최신 과시 테샨-① 최신 과시 수강	PIRAM 문화 윤법 송로	PIRAM 테샨 PIRAM 문화	PIRAM 테샨 PIRAM 문화	PIRAM 테샨 윤법 송로	
	수분감 미적분	수분감 수리	수분감 확률	수분감 미적분	수분감 수리	수분감 확률	
수학	뉴진 확률 (비공계)	뉴진 미적분	뉴진 수리	뉴진 확률 (공계)	뉴진 미적분	뉴진 수리	이런
	SYNAPSE 수리	SYNAPSE 확률	SYNAPSE 미적분	SYNAPSE 수리	SYNAPSE 확률	SYNAPSE 미적분	
탐구 및 영어	필수본 수강 기초 1등문제	02 개별수강 기초 1등문제	영어 물리화학 수특	02 개별수강 기초 1등문제	필수본 수강 기초 1등문제	영어 자외 수특	

## [칼럼04] 주간계획표 - 2부

1부에서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간계획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간계획표 관영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국어	고산 주시례습 ①	고산 주시례습 ①	PIRAM 문학	PIRAM 독서	PIRAM 독서	PIRAM 독서	
	PIRAM 독서	고산 주시례습	문법 송문	PIRAM 문학	PIRAM 문학	문법 송문	
수학	수업장 미션	수업장 수리	수업장 화형	수업장 미션	수업장 수리	수업장 화형	이유
	뉴진 화형 (비공개)	뉴진 미션	뉴진 수리	뉴진 화형 (특제)	뉴진 미션	뉴진 수리	
	SYMPSE 수리	SYMPSE 화형	SYMPSE 미션	SYMPSE 수리	SYMPSE 화형	SYMPSE 미션	
탐구 및 영어	필수본 수업	0원 개념수강	영어	0원 개념수강	필수본 수업	영어	
	기초 토론제	기초 토론제	물리화1 수특	기초 토론제	기초 토론제	자극 수특	

위의 계획표에 대해 1부에서 분량상 말하지 않았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시간의 배치가 가진 의미입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고 해야하는데 귀찮은 일이라면 먼저 하고 해치우는 게 낫습니다. 분량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중요한 공부의 경우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모르는 게 생기고, 탄력이 붙어 욕심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먼저 하다 보면 영어 공부 같은 것들을 결국엔 못하고 지나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도를 얼마 못 나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따라서 '물리학1 수특'을 '영어'를 한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두 시간에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별 다른 학습 효과 상승이 없는 게 '물리학1 수특' 같은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비워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과 심야 시간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1. 쉬는 것도 공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부시간을 여기까지 늘려버리면 진짜 집중해야 할 시간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요. 오히려 하루의 공부시간을 8~9시간으로 설정하고 약간의 조바심을 가지며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 2. 선택과 집중

김동욱 선생님께서 6시에 일어나라고 기상 문자를 보내도 우리는 그걸 신청해놓고 맨날 그냥 잡니다. 7시 10분 쯤에 일어나서 모닝 오르비 할 때 확인하는 거죠. (\*필자의 경험담) 이것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매일 7시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원까지 매일 10분 동안 자전거로 전력 질주하니 실제로 잠도 깨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잠을 깰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항상, 매일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무리일 수 있고 항상 이를 유지하긴 힘드니 불확실한 시간엔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7시 30분에는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항상 깨어있는 8시부터 본격적인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전날에 배운 내용을 백지복습 하였습니다. 파이널 댄 전날에 못 풀었던 실모 킬러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전날 충족하지 못한 계획을 이때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심야시간(10시~)에도 이렇게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면 도움되는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합시다.

정리하면, 새벽과 심야 시간은 웬만하면 비워 놓고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은 되는 것들을 공부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간계획표는 아래와 같이 완성됩니다.

### 주간계획표 칼럼

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국어	교산 문제 해설-① PIRAM 독해	교산 문제 해설-② 교산 문제 수강	기RAM 문해 문법 송동	PIRAM 독해 PIRAM 문해	PIRAM 독해 PIRAM 문해	PIRAM 독해 문법 송동	
	수강 미완료	수강 수기	수강 화질	수강 미완료	수강 수기	수강 화질	이유
수학	뉴진 화질 (비공개)	뉴진 미완료	뉴진 수기	뉴진 화질 (공개)	뉴진 미완료	뉴진 수기	
	SYMPSE 수기	SYMPSE 화질	SYMPSE 미완료	SYMPSE 수기	SYMPSE 화질	SYMPSE 미완료	
탐구 및 영어	필수본 수강 기초 15문제	0% 개념수강 기초 15문제	영어 올리하이 수록	0% 개념수강 기초 15문제	필수본 수강 기초 15문제	영어 자구기 수록	

큰 틀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칼럼에서 문단은 문장과 지문 사이의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며, 이는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의 미지근함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주간계획표를 세움으로써 거시적인 학습과 미시적인 학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간계획표를 몇 주 간 반복해야 분기별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되고, 일주일을 어떻게 구성해야 골고루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메타인지는 향상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문제지를 풀 때, 수학과 과탐은 15문제를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킬러와 준킬러 문제를 푼다 해도 15문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지는 킬러만 15개 연속으로 구성하지 않으니깐요. 킬러 문제지는 5문제를 기준으로 하시고, 독서, 문학은 3지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단, 이 숫자는 최소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피곤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날이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것이지, 여유가 조금 있다면 두세 문제 더 푸는 건 당연하죠.

## 하지만, 이 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매일, 매주 반복되는 패턴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컨디션은 어쩔 수 없이 달라, 어떤 날은 수학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국어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중이 작은 공부들을 몇 개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해야 하긴 하는데 시간을 쓰기 애매한 것들.

저 같은 경우 문법 N제와 수학 기출들이 그랬습니다. 문법은 일정 궤도에 오르면 틀려도 실수로 틀릴 뿐이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뭔가 공부하기엔 조금 손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수학이나 탐구 공부 틈틈이 해당 과목 공부가 질릴 때마다 문법을 몇 문제씩 풀었습니다. 이게 제 문법 감을 유지하는 데 확실히 도움 됐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문법 지업은 굳이 엄청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해 지는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문법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문법 지식은 정말 얼마 안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 N제로는 '말본바탕'을 풀었습니다. 바탕 1년치 결제하니 달려와서 푼 건데 좋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나, 국어, 탐구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가볍게 수학 킬러 기출을 몇 개 훑었습니다. 수학 킬러의 경우 3개년 평가원은 제가 직접 모든 문제를 적고 해설도 써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틈날 때마다 보면서 평가원이 어떻게 조건을 설정하는지, 이게 효율적인 풀이인지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3개년 간의 주요 수학 기출들은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해설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를 찾아본다면 이들을 위주로 찾아보게 될 것이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본인이 큼직큼직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여 몸에 익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스케줄상의 틈이 보일 겁니다. 이게 자투리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엔 위의 예시처럼 본인만의 자투리 시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좋습니다.

\*

'물리학1 수특' 같은 공부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공부는 사실 끝맺기가 힘듭니다. 조금 빠센 단원에 들어가면 선지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하게 되고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애초에 단원 특성상 풀이가 길어 그냥 푸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30문제를 푼다 해도 시간 제한 안 두면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강제로 걸면, 그 시간 내에 집중하게 되어 취할 것만 취하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물음에 모두 답을 찾으려 애쓴다면, 제한이 있을 땐 정말이 물음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단순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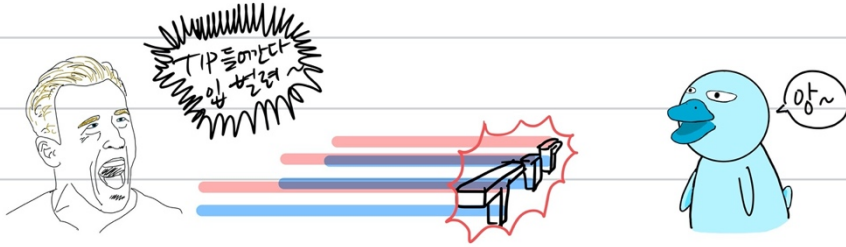






## [TIP!]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네

5월에 쓴 칼럼이네요.  
수능 한 달 전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본 칼럼의 내용대로만 해보세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은 ('사실은 2인데 평가원 4 뺐어요  $\pi\pi$ ' 이런 애들 말고)  
**필연적으로 독해력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할 공부는  
**지문을 모두 이해하는 겁니다**

입니다

시험장에서 지문 내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건 매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자신의 독해력의 상한선을 높이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6모 전**까진 지금까지 평가원이 요구한 독해력은 갖춰 놓아야 하고

**6모~9모**엔 어려운 지문으로 독해력을 평가원의 요구보다 조금 더 높인 후

**9모 이후**엔 본인의 한정된 독해력으로 점수를 최대한 뽑아먹는 연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출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되,

이해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해를 해야 출제 원리도 보이고 구조도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1. 문장 단위로 이해하고
2. 문단 단위로 내용을 정리하고
3. 지문 전체의 흐름(구조)를 봅시다

'지문을 다 이해했다' 의 기준은 이겁니다 (제가 했던 방식)

## 지문의 모든 내용이, 흐름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 작업을 두 달은 하시고 경로를 바꾸던가 하세요

사실 그 때쯤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ㅠㅠ'**

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짧고 쉬운 지문은 세 개

어려운 건 두 개

개어려운 건 한 개

적어 보이지만, 사실 이 양은 '적어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이상은 힘들어서 더 못한다'** 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국어는 웬만하면 아침에 하세요~

상담하면 맨날 하는 말이어서 간단하게 쓰고 갑니당



## 시험 전략에 대하여

국어 내의 각 과목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학생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 1. 가채점표는 무조건 쓰세요

수능 날 대부분 가채점 표를 쓰는 걸 염두에 둘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성적이 나오는 3주간 불안에 떨며 제대로 된 입시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겁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단 외면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능 직후 본인의 수능 성적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시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승리해야 합니다.  
합격증 받을 때 입시는 끝나요.

그런데 이걸 수능 직전에야 연습할 건가요?  
6모 9모 같은 중요한 기회에 이를 연습하지 않을 건가요?

자 이 정도면 가채점표를 쓰는 쪽이 설득력 있어 보이죠?

**가채점표를 시간이 나면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되면 안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 2. 하지만 가채점표를 쓰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당연하죠.

OMR도 다 못 쓰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여러분은 80분 내내 집중 하시나요?

저는 못합니다.

연속성있게 집중하면 오히려 마지막 비문학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와중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4. 그러면 OMR&가채점표 작성 시간을 이용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해야 합니다.

##### 선택과 집중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래와 같이 시험을 볼 겁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학 → 화작문 → 독서

제가 문학을 먼저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집중력 때문입니다.

화작문은 무조건 다 맞춰야 하는 변두리 과목이라는 인식이 여러분을 나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메인 과목인 문학을 먼저 보면 집중력을 한번에 확 끌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름 잘 먹혔습니다.

##### 둘째, 실수의 빈도 때문입니다.

문학은 헛갈리는 선지가 많고 다른 과목보다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지문에서 근거가 갑자기 안보일 때도 많아요. 절대 논리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본다면 쉽게 풀릴 것들이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험 칠 땐 도저히 안 보이던 답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보이는 경험.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위권이어도 문학에서 헛갈리는 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학을 먼저 풀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화작문 다음에 문학을 풀면 문학을 푼 직후에 검토해야 하지만 문학을 먼저 풀고 화작문을 다음에 풀고 그 후 검토를 하면 적당한 시간 차가 생겨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풀 여지가 많아집니다.

설득력이 있나요?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독서 순서는 난이도 순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괜찮을 때를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지문을 먼저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이 매우 어렵게 나왔을 시 15분 내에 풀지 못 할 수 있고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과목이 끝날 때마다 쉬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갈수록 더 자주 쉬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80분 내내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하는 건 힘들고 시험 종료가 다가올수록 지구력이 약해집니다. **이를 부정하지 마세요.** 모두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평소같았으면 맞았을 문제를 시험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져 실수하였고, 독해도 마지막 가선 어영부영 대충 때우죠. **독해 훈련할 땐 이 지구력을 키워야 하지만, 실전에서는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전략을 짰습니다.



어차피 OMR과 가채점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작성할 땐 머리를 쓰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우린 이때 약간의 휴식을 도모할 수 있어요.

- 문학 같은 '모 아니면 도'의 성격을 가진 과목의 경우엔 이들을 작성할 때 잠깐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정답을 고치거나, 이미 작성한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땐 OMR만 작성해 주세요.
- 독서 두 지문을 끝내면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로 장지문(일 확률이 높은) 마지막 독서를 들어가면, 지문 독해가 끝나갈 때쯤에 지구력이 바닥나 좋은 마무리를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도 OMR을 작성하시는데, 작성할 게 지문 두 개밖에 없어 휴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채점표는 이때 작성합니다. OMR 카드를 보고 배끼면 되는 거여서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 독서3에선 OMR을 같이 작성합니다. 문제가 얼마 안되잖아요. 가채점표는 굳이 작성 안해도 되는데, OMR 걷는 시간에 마지막 지문 답 6개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끝나고 마저 작성해도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OMR 제대로 썼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항상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건졌습니다. 심지어 수능날에도 불안함 등의 감정 때문에 독해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이 방법을 통해 세 문제 이상을 옳게 고쳤습니다.

## 그리고 약간의 팁들

1. 독서 3점은 나중에 몰아서 푸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본인의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2. 문학 안 보이면 바로 넘어가라.

문학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다.

2-1 당황하지 말고, 상황과 반응만 집자.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면 반응하자.

+ (중략)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2-2 인물관계는 옆에 메모하는 것도 좋다.

3. 뭘 읽는지 모르겠다면, 잠깐 멈추고 흐름을 잡자. 이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이다.







## 지문 위 표시법

최근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국어 공부를 할수록 이해보다 표시하는 잡기술..?만 늘어나는것 같아요 순수 독해력을 끌어 올리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까요...?*

저같은 범인은 지문 위에 표시를 하며 독해하지 않으면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표시를 하지 않으며 독해하는 분들보다 표시를 하며 독해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미리 다 정복해 놓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문 위에 표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순수 독해력을 올리기 위함
2. 문제를 풀 때 잊은 개념 및 설명을 찾아가기 위함

### 1. 순수 독해력을 올리기 위함 - 지문 독해

공신으로 유명하신 강성태님의 저서에 이런 비유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대로 써보겠습니다.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공부를 해라. 인간이라는 비행기에는 5개의 엔진이 있다.  
눈으로만 공부한다는 것은 이 중 하나의 엔진만으로 날겠다는 것과 같다.  
손을 쓰고, 귀를 써라. 최대한 활용하라.*

미각, 후각, 청각은 시험장에선 쓰기 힘들죠. 평소에도 쓰기 힘듭니다. 쓸 수 있는 감각이 제한되니,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을 쓰세요. 본인이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나마 표현하세요.

### 2. 문제를 풀 때 잊은 개념 및 설명을 찾아가기 위함 - 지문 독해 후

우리는 독해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개념이나 중요한 개념 및 설명에는 어느 정도의 표시를 해 두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걸 표시해야 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하다보면 이게 오히려 독해를 망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에 발전시킨, 작년에 만든 표시 체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즉각적인 정보 처리는 독해의 기본입니다.

이를 무의식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처리의 기본은 개념들 간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위개념이고 무엇이 하위개념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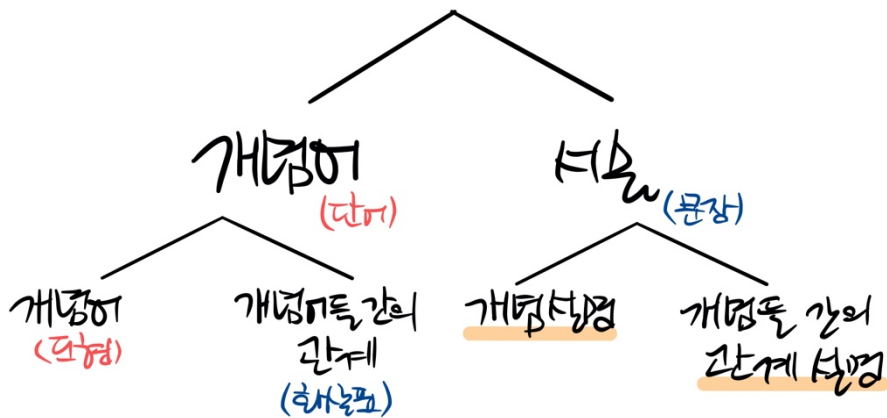
이 태도가 중요했던 지문이 바로 이번 6평 ict지문입니다.

디지털세를 본 후 법인세를 발견했을 때, 두 개념이 같은 층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무엇이 다른지 능동적으로 파악하려 했을 것이고 이는 법인세는 이윤에,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세가 어떤 관점에서 법인세보다 국가에 이득인지 알 수 있었구요. 이 사고가 됐다면 그 다음 문단의 화제인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개념들 간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 표시해야 할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표시에 집중하느라 이해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문 독해 후의 과정(문제 풀이 과정)을 위한 면이 있다보니 현재의 독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죠. 이 면에만 주목하시는 강사분들은 지문 위에 표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해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념어에 표시하는 법부터 봅시다.

## 1. 개념어 (단어)

주로 도형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개념어를 보며 항상 그 층위를 파악해야 하기에 각 개념의 층위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표시합니다. 가장 상위개념은 네모, 그 아래는 동그라미, 그 아래는 밑줄로 크게 세 가지 도형을 씁니다.

대립되는 개념의 경우엔 세모를 이용합니다. 세모는 네모와 동그라미, 두 개의 층위를 모두 커버하는데 그 이유는 마땅한 아이디어가 잘 안떠오르고 대립어의 경우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 오히려 구분하면 번거로움 때문에 독해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립어의 경우 대립화살표( $\leftrightarrow$ )로 무엇이 서로 대립되는지 표시하기 때문에 층위와 대립의 대상도 헷갈릴 일이 적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 2. 서술 (문장)

문장이나 절 단위의 서술에도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괄호와 슬래쉬(/)를 이용합니다. 괄호에도 종류가 많고 똑같은 종류의 괄호여도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 가)-1 괄호 : 논증관계와 인과관계

개념들 간의 대표적인 관계는 세 가지. 대립관계, 논증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는 문장으로 명시적이게 주는 경우는 드물고 이미 앞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논증관계와 인과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구조 파악으로 의미 형성이 잘 된다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해를 위해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실전에선 복잡하고 높은 정보량을 가진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 - 논증관계 : DC 구조

논증관계는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므로 -이다 가 대표적인 구조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등의 부사어를 통해 문장과 문장 간의 논증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Data (근거)》 [ Claim (주장) ]

#### \*문장 내

일반적인 상황엔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아래와 같이 논증을 부정하는 경우엔 화살표에 X표시를 치며 간단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 b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을 이끌어낼 수 없다.

#### \*문장 외

두 문장이 논증구조로 이어져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 인과관계 : CE 구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구조를 하나 뽑기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쉽지 않지만 별 다른 노력 없이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 Cause (원인) > { Effect (결과) }

\*문장 내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문장 외

DC구조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 예외 : 관계의 순서가 역전된 경우

크게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직관적인 의미 구성 순서와 반대인 경우 독해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애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태도이죠. 이땐 문장 구조를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DC구조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 예외 : 비례/반비례 관계

명백한 인과관계이지만 괄호를 쓰기엔 너무 미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소괄호로 변수를 나누고 화살표로 증감을 표시하는 게 좋은데, 소괄호만 하고 옆에 메모를 간단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살표보다는 메모가 훨씬 알아보기 쉽거든요.

$$JK \propto SK \propto \frac{1}{CA} \propto \frac{1}{RFR}$$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메모를 할 땐 초성만 떼서 쓰는 편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어요.



## 가)-2 괄호 : 이해의 대상 구분

지문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장은 주술구조만으로도 완성됩니다. 이때 문장은 단 하나의 정보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보량이 많은 문장은 여러 문장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중심인 주술구조 이외의 문장들은 관형어, 부사어 등의 서술어로 변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문장에 한해서 이들을 구분하며 독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 단 하나의 주술구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보통 소괄호( )와 홑화살괄호( < > ; 꺾쇠)를 구분하여 이용하는 편인데 실전에서 굳이 항상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문장들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소괄호는 부사어에, 홑화살괄호는 관형어에 표시하고 관형어는 수식하는 대상을 그림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실전에서 모두 소괄호를 쓰는 편입니다.

## 나) 슬래쉬(/) : 흐름 전환의 능동적 반응

지문에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기 때문에 몇 문장 단위로 정보의 흐름이 바뀌곤 합니다. 이는 문단으로 가시적이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문단 내에서, 혹은 한 문장 내에서도 정보의 역할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때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으면 두 개를(/) 씁니다. 두 개 이상을 쓰는 건 지문 독해에 오히려 좋지 않더라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정보량이 많은 문장의 경우 그 안에서도 슬래쉬를 씁니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구분을 위해 본 글에서는 슬래쉬는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 + However

독해를 하며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정보는 세부 인과관계, 논증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표시를 해 두어 필요 시에 돌아가면 돼요. 가져가야 하는 건 **흐름**입니다. 화제와 정보의 역할들. 이들의 조합을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 반전, 역전의 흐름은 분명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 그러나, 한편, 반면과 같은 부사들에 반응하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어 지문에서 반응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러나, 한편, 반면과 같은 '역접의 부사' 위에 H라는 글자로 흐름에 반전이 있음을 표시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 사실 지문 독해 후의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지문 독해 과정에서 흐름이 머리에 더 잘 박힌다는 느낌이 들어 항상 놓치지 않고 반응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 + 여러 개의 주술구조

예외 상황이지만 굉장히 단순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깊은 관계를 갖기보다는 단순 병렬적으로 접속소사를 통해 이어집니다. 어떤 때는 흐름의 분명한 구분을 위해 쉼표(,)도 같이 씁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슬래시를 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 예시 : 중요한 건 얼마나 실전에 도움이 되는가. 표시 체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득배하는 순간의 명의 변경은 100이라 할 때,  
 (100을 1년 12월의 이월로 두자하는 게 낫다)  
 99은 12월은 이월하는 데 투자하고  
 10은 명의 12월은 12월 12월 12월  
 득배해야 한다.

# 10

중요 내용반응  
중요 구조반응

## 국어 영역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의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점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를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법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실모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파이널 시즌이 다가오네요.

저는 9월 모평 이후, 수능이 미뤄진 이 시점에서 10월이 파이널 시즌의 시작이라 봅니다.

이 날을 위해 여태 잘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본 겁니다.)  
저는 사실 BIS지문 40번 <보기>문제를 찍어서 맞았어요. 이게 틀렸다면 저는 그냥 국어 1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칼럼을 쓰며 뚝뚝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수능날 40번을 찍은 그 행동이

진짜 실력자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전제로 할게요.

**제가 못푸는 평가원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사실 평가원 문제들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면 누구나 다 풀립니다. 난이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제가 특출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1등급은 4%밖에 못받는 걸까요?

평소에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분들도 막상 수능날 3등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국어 컨텐츠 제작자들이 전부 다 '수능' 국어 1등급일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유명 국어 강사들을 시험보게 하면 다 100점이 나올까요?

**실력이 좋은 것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실모는 본인의 상한선을 올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한선을 올리는 도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 점수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모든 대비를 해야합니다.

시험장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변수들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존재하는 변수도 있고 시험장에서만 존재하는 변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만 존재하는 변수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고 겪어본다 해도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대비를 하는 게 힘들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평소에 공부할 때도 존재하는 변수라도 정복해야 합니다.

왜 실전에선 실수를 하고 본래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할까요?  
여러 변수가 있어서겠죠. 시험을 망하는 방법은 다채로우니까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고등학생 때 수학 과외를 몇 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들어서 2:1과외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노력파였어요. 성실하고. 공부 잘 했죠.

원래 그 친구가 1:1로 과외를 받다가 제가 중간에 합류한 건데

제가 좀 더 빨랐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개념 연습문제 풀리면 친구가 그거 마저 풀 동안 전 다른 개념 연습문제 암산하고 있었죠.

항상 같이 뭘 풀리면 몇 문제는 앞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결국 내신 1등급은 누가 받았을까요?

그 친구가 받았습시다.

저는 3등급이었어요.

이게 재수 때까지 이어졌습시다.

재수 때 수능 직전에 본 실모가 96점이었어요.

수능날엔 4등급을 받습시다.

저는 엄청 실수가 잦은 타입이에요.

왜 실수가 생기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냥 태생적으로 이런 줄 알았습시다.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엄청 실수를 해요.

유일하게 물리만 실수를 좀 덜하는 과목이었습시다.

당연히 국어도 마찬가지로였죠.

실전력이 누구보다 약했던 저이기에

삼수 때는 정말 치열하게 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비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거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했던 저지만, 파이널 만큼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과목 현강을 듣는 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좋지 않아 정말 필요한 과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국어로 선택했습니다.

왜 국어였냐면,

성과 상관 없이, 국어 공부에 대한 감을 찾은 건 삼수 때가 처음이었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좋은 점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실모를 보며 좋은 점수가 나와도 제 실력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겪을 수 있고, 시험 스케줄에 강제성, 낮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실모 현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제게 잉여 시간이었고, 국어 실모는 아침에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어 파이널 주간 스케줄이 형성되었습니다.

🕒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지난주 해설강의
	지난주 실모 피드백 및 문제점 보완						이번주 현강 실모

위의 계획표 양식은 [칼럼04] 주간계획표를 따릅니다.  
 TM101 '저번주'는 '지난주의 방언이래요...' / TM102 '이번주'는 '이번 주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파이널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은 제게 수능날이었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모든 수를 써서 지난주의 문제점을 보완해요.

여러분, 10주입니다.

10번의 시험.

10번 안에 수능장에 들어가도 자신있는 실전력을 키워야 합니다.

태도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실모를 풀며 독서 지문 독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당연히 높은 독해 체력일 것입니다.(=이상)

그러나, 실모를 푸는 파이널 시기에 이런 근본적인 실력을 높이는 것으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현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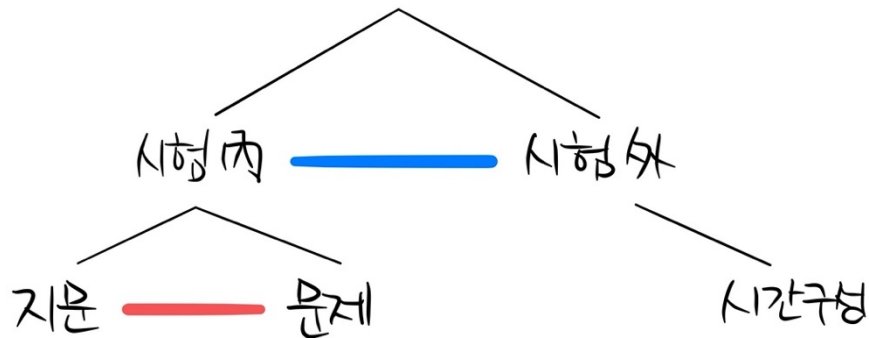


\* ~ : 조화

실모를 피드백 태도를 교정할 때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상적 상황과 현실의 한계를 파악한 후, 그 사이의 조화점을 찾는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실모를 분석할 때 저는 아래와 같이 분석의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시험 외적인 것들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간단하게 후술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내적인 것들부터 짚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모를 풀고 나서 고민하는 것들 중 대표되는 일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제 경험담도 있고요

같이 분석해보며 실모 피드백에 대한 '감'을 익힙시다.

## 시험 내적 - 01. 지문 독해

*Q.01 지문에 표시한 개념을 문제를 풀며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못했어요 ππ.  
이럴 거면 표시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상** : 독해를 하며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

**현실** :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

**조화점** :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표시를 한다.

지문 위에 표시를 하며 읽을 거면 그 방법을 매우 구체화시키세요. 일단 본인이 **왜** 이런 문제를 겪는지 알아야겠죠? 평소에 여러분이 지문 위에 표시하는 방식을 봅시다. 개념의 특성에 대한 구분 없이 똑같은 도형을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라면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출제될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분할 거예요. 개념들이 나열되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는 그들 간의 층위를 파악함입니다.

이를 반영한 글이 **[칼럼08] 지문 위 표시법** 입니다.

(<https://orbi.kr/00032156931>)

**Q.02** 장지문 독해 시 마지막쯤에 부족한 독해 체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상** : 고난도 지문을 양치기 하여 독해 체력을 높인다.

**현실** : 고난도 지문이 항상 도움되진 않으며 남은 시간 동안 무적의 독해 체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조화점** : 고난도 지문을 적절히 풀며(하루 한 두 개) 주어진 독해 체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고민한다.

장지문을 읽으며 공통적인 문제가 뭐죠? '마지막'에 독해 체력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지문은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실 독해체력을 많이 길러 놓는 게 필수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쯤 가서 끝이 보이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큼니다. 따라서 전 장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마지막 문단 앞에 한 번 쉬라고 체크를 해 놓았어요.

한 숨 고르면서 그간 읽었던 내용을 쓱 훑어보고 정리합니다. 내가 뭘 읽었고 이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 정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무엇을 설명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했다면 준비 된 겁니다.

길어야 30초.

15초 내외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지난 '6평 시험 전략' 칼럼에서도 말했듯이, omr 마킹과 가채점표 작성 시간으로도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어 영역**

물음에 답하시오.

①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일단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해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고발한다.

②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후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③로온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④ 있다.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⑤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⑥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핵이 ⑦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⑧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 ⑨기권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를 필수적으로 ⑩가지고 있다.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 ⑪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⑫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 서도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⑬형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⑭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바환 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⑮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을 쉽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⑯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플랜티와 ⑰.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⑱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⑳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티오린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Q.01 선지를 잘못 읽었어요 ππ.**

**이상** : 선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다.

**현실** :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조화점** : 자주 출제되는 선지 형식을 기출을 통해 미리 파악한다.

사실 우리가 수험생이기에 작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 거지, 평가원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형식이 정해진 것들입니다. 기출을 통해 이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아래 문제를 봅시다.

<p>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p> <p>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20. 윗글의 ‘최한기’와 &lt;보기&gt;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p> <p>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p> <p>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p> <p>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p> <p>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p> <p>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p>
<p>20.06 금융건전성</p>	<p>19.06 심주지각설</p>

두 문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입장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28번에선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20번에선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애초에 발문에 ‘비교하여’가 있으니까요. 각 선지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p>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p> <p>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20. 윗글의 '최한기'와 &lt;보기&gt;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p> </div> <p>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p> <p>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p> <p>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p> <p>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p> <p>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p>
20.06 금융건전성	19.06 심주지각설

두 대상(A, B)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만 물어본다    B와 달리 A  
 B만 물어본다    A와 달리 B  
 A와 B 모두

이 다섯가지 경우 중 몇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 5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자는 '심주지각설' 지문의 얘기고 후자는 '금융건전성' 지문의 얘기가겠네요.

일단 저는 이런 유형에선 선지를 위와 같이 물어보는 대상을 설명한 지점에서 끊을 겁니다. 판단의 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표시할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 물어본다면(28번 ①, ② 선지) 따로 그 위에 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와 같이 차이점을 묻는다면 두 대상 모두 고려하면서 더 중점을 두는 대상에 주목하기 위해 'B와 달리 A'에선 A위에 세모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와 같이 공통점을 묻는 선지에선 'A와 B 모두' 위에 동그라미를 길게 칩니다. 둘 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이와 관련해서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단순한 실수라면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운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시험장에서 겪을 변수를 하나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선 변수를 만들면 안돼요.

실모는 시험장에서 겪을 변수를 정복하기 위해 푸는 겁니다.

## 시험 내적 - 01. 시간 구성

*Q.01 시험을 주어진 순서대로 풀자니 나에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게 맞는 순서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 : 모든 경우를 여러번 도전해보며 나에게 맞는 순서를 찾는다.

**현실** : 시험은 분야별로 난이도와 경향이 계속 달라지고 시험을 준비할 기간 또한 제한되어있다.

**조화점** : 여태 풀었던 실모들을 분석해 보며 어떤 순서가 가장 범용성이 높을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만든 칼럼이 바로 **[TIP!] 국어 시험 전략 : 6평** 입니다.

(<https://orbi.kr/00030685674>)

이 칼럼은 어느 정도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시험 내적 - 02. 기타 변수들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위와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숙제입니다. 시험 내적인 요인과 시험 외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칼럼으로 올리기 전까지 스스로 메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Q.HW**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을 마지막에 풀어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정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9모 전까지 실전력은 신경 쓰지 말고 '상한선 올리기'에 집중하라 했던 거예요. 실력이 바탕이 돼야 이것들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10월 전까지는 실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며 주의할 점은, 이들은 모두 꿈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진짜 실력.

본 글은 실모 피드백 시 사고의 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꼭 체화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 1. 수능 2주 전에는 쉬세요

여태껏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어요. 억지로 졸음 깨며 비몽사몽한 채로도 어떻게든 한 문제 더 풀려 했고, 간혹 가다 게으름을 피운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욱 몰아치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독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스스로 불안하여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했던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제 더 공부할 건 없어요.  
있는 걸 온전히 잘 챙겨가야 합니다.

항상 말했듯이, 6~9월은 진보적인 공부를, 10월~수능은 보수적인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컨디션 싸움이죠.

저도 그랬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은 너무 지칠 거예요.  
잠을 일찍 잤는데도 늦게 일어나고 피로는 안 풀리고...

그런 의미에서, 수능 2주 전에는 쉬세요.

그 한 주를 완전히 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쉬엄쉬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 그 중 며칠을 온전히 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래의 빨간 기간에는 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힘차게 달리는 거죠.

2020년 11월							일	주	월	년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일	2	3	4	5					

마지막에 하는 공부는 그대로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수능날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이 전략이 잘 먹힌 것 같아 조심스레 제안드립니다.

## 2.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본질을

물론 알아서 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할지 몰라서 헤맬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공부의 방향성을 잃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본질을 한 것 같아요.

### 다시 기출을 기본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뭘 공부한 기출 문제들이 몇 개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그거 하세요. 일단은. 이 공부를 하다보면 뭘 공부해야할지 감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제가 드리는 아래의 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21.06과 21.09의 출제 포인트 분석**  
→ 20~18학년도의 기출과 대조
- **이전 기출의 6평 9평이 당해년도 수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21.06&09가 어떻게 21.11에 반영될 것인가?

모든 대상은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에서도 기술, 제도 등을 설명할 때 이를 기준으로 서술하고 문학의 외적 준거들 또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문을 분석할 땐 이게 **내용(정보)**과 **구조(흐름)**으로 구체화 되겠네요!

**아직 기출을 1회독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과제에'만' 집중해주세요.

- **20.11 / 21.06 / 21.09 : 선지 분석, 필연적 독해 태도와 연관짓기**

이것만 제대로 하셔야 그나마 성공할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문제 풀이와 지문 독해를 모두 다듬을 수 있는 기출 분석 관점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작년 수능과 올해 기출들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출제 기초가 가장 유사할 테니까요.

물론 모든 성적대가 위의 과제를 해도 좋습니다.

위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제가 만든 4개년 기출문제지&학습지가 크게 도움 될 겁니다.

제가 4개년 학습지를 만든 건 지금 시기를 위해서예요.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문법의 경우엔 20.11 / 21.06 / 21.09 의 모든 선지를 분석하여 그 논리와 지엽의 선을 확인해주세요.

지엽의 정도에 따라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칠해 복사.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한 지엽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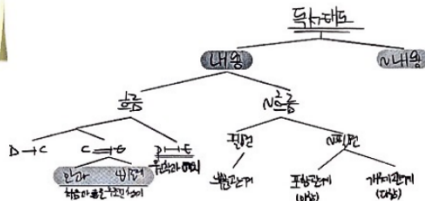
### 3. 수능날 가져갈 종이 한 장을 끊임없이 수정하세요.

지금 시기의 공부는 오로지 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 투자돼야 합니다. 위의 2번도 이를 위한 공부입니다. 제가 재수와 삼수에서 유의미한 성적차이가 난 이유는 이 한 장을 제대로 만들었는가의 유무였습니다. 재수 땀 수능 전 날 급하게 만들었고, 삼수 땀 한 달에 걸쳐 수정해나갔습니다.

### 본인의 독해 방법론과 시험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선별합시다.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리될 거예요.

좋은 태도가 떠오르면 이를 기출에 적용해보면서 검증합시다. 실모에도 적용해보고요. 저도 지금 시기에 실모를 풀면서 계속 이를 피드백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팔랑은 것!!!

~내용

- 기출을 꼭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 선의 공부의 원리
- 3점짜리라도 고득점에 반영되면 결과 같지 않음. 인과관계도-생각해볼 것임
- 필요한 부분은 MEMO
- 3점 혹은 딱봐도 고난도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풀어도 좋다.
- 문제에 그림이 있으면 반드시 참고하기 (과학 기술)
- 19.11.우주론 오마주 지문은 두 개로 나눠서 풀기!
- 지문을 중간쯤 읽었을 때, 혹은 정보항에 피로할 때 첫 문단을 다시 봐서 문제의식과 주제를 삼기시킨다.
- 글쓴이의 첫 문장이 곧 부제라고 이해할 것임(사상). (10.06. '황기' 3항목 → DAE2020)

● 호기심

- 개념 등장 ; "너 왜 나왔니?"
- 글이 똥길 수록 끝까지 정신줄을 붙잡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이항 대립 : "무엇이 다른가?" "나열도 대비다."

- 이해도, 집중도가 떨어질 때 ;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문 앞 부분 다시 읽어도 좋다)
- 연속적인 C=>E 관계 ; "그래서 결론이 뭘데?" -> 처음과 끝을 잡아라

● 출제 POINT check

- 인문, 철학, 사회 : 논증, 이항대립
- 과학, 기술 : 인과, 비례
- 경제, 융합형 지문 : 이항대립, 인과, 비례
- 법 : 원칙과 예외
- 법 : 이상과 현실 (주로 기술, 사회, 경제 등)

● 5분 내외로 시간이 남았을 때 지문 한 개가 남았다면..?

1. OMR카드에 쓴 답의 개수를 분석해본다.
2. 일단 가장 적게 쓴 답으로 찍는다.
3. 찍은 답이 오답인지 아닌지 지문과 대조해 보며 파악한다.
4. 답을 수정한다.

본 글에 20학년도 수능날 가져간 정리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제 첫 칼럼, [칼럼01]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 경험담 (2부) 에도 있습니다.

#### 4. 당연히, 수면패턴은 맞추셔야 합니다. 시험시간에 본인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게.

삼수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쩌면 전 수능을 보며 제 재수가 망할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국어를 풀며 잡생각이 들었고, 온전히 몰입하지 못했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다음 수능을 준비할 땐 집중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강박적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전력을 보여주는 데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수면패턴'입니다.  
지금 시기에 **1시 이후에 잠에 들은 시험을 망치겠다는 의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저는 이 시기에 **항상 6시 50분 ~ 7시 10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수능날에도 그랬고요.

제가 수능을 본 지 1년을 넘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수능판을 못 떠날까봐 두려웠었는데 300일하고도 65일이 더 지났다니...

하루 하루 후회 없이 산다면, 분명 원하는 바를 비슷하게나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수능판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면 정말 넓은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정말 너무 넓고 거대해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 넓은 세상을 하루 빨리 경험해보세요.

여행을 하면서든, 돈을 벌면서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